

우체국과 사람들

Korea Post magazine
Since 1946

2026 11+12 November+December

CONTENTS



10



14


26

KOREA POST MAGAZINE
SINCE 1946

우체국과 사람들

2026년 11+12월호(통권 773호)

발행인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발행일 2026년 11월 1일

발행처 우정사업본부 홍보협력담당관실

주소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편집인 직무대리 최현준

편집위원 지현근, 오영진, 박세호, 조지혜

기획 한국우편사업진흥원(담당 김소라 sr2305@posa.or.kr)

편집/디자인 (주)꽃을담다

773
2026 11+12

DISCOVERY

04
테마 프롤로그

06
우정가족 앙케트
한 해의 끝,
12월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10
아주 보통의 우정인
꾸준한 성취로 열정을 키우며
'만능캐'를 꿈꾸는
파주운정동우체국 황서진 주무관

12
우정 포토제닉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키운 순간, 찰칵!

RECOVERY

14
창간 80주년 특별 기획 I
지금 만나러 갑니다
펜과 카메라를 들고
전국을 돌던 그 시절 사보 기자
김혜영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전문위원

16
창간 80주년 특별 기획 II
어바웃 타임
우체국 사보에서 발견한
따뜻한 나눔의 풍경

18
헬스레터
겨울에는 왜 감기에 더 잘 걸릴까?

20
컬처레터
고궁이 이렇게 힙했나?
'힙트래디션'의 다음 장

22
Dear,

POST-COVERY

24
우체국 옆 공항
지역의 첫 얼굴과 든든한 이웃
공항과 우체국을 함께 만난 2년

26
우체국 트립
우정인의 내일을 키우는 곳
우정인재개발원

30
우체국 행복나눔 소식
반찬을 전하며 어르신의 안부를 살펴요
도봉우체국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반찬 배달 현장

34
우정 포커스 I
이스포츠 전설의 기록, 우표로 만나다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
'페이커' 기념우표 기획전시관 개관

36
우정 포커스 II
우체국예금 신규 명예홍보대사
LIGHTSUM(라잇썸)

38
나만 몰랐던 우체국 서비스
지역의 오늘이
국민의 내일이 됩니다
우체국쇼핑 출범 40주년

40
우체국 핫클립

42
우정 카툰

44
우체통 앞에서

46
POST NEWS

48
우정 알림장

50
POST EVENT



postnews.kr
《우체국과 사람들》 웹진을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충분히 최선인
하루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처럼 보여도
그 안엔 저마다의 최선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작은 최선들이 모여
오늘의 우체국을 만들어갑니다.

한 해의 끝,
12월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1위
한 해에 대한 토닥임
"수고했어"



돌아보면 잘한 일도,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온 나에게 가장 먼저 건네고 싶은 말은 "수고했어"였다. 바쁜 업무 속에서 묵묵히 하루를 채운 나에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견뎌낸 나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우정가족들. 남에게 건네는 위로만큼 나 자신에게도 다정한 말을 건네보자. 한 해의 끝에서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올 한 해도 참 애썼다"고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수고했어 #나를위한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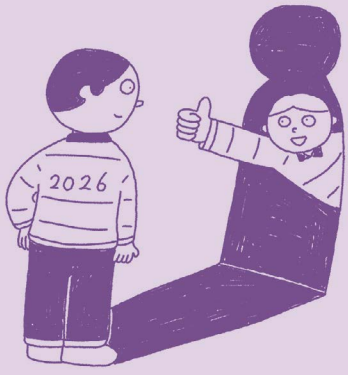
2위
나를 위한 응원
"파이팅!"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도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 "내년에도 파이팅", "더 열심히 해보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자"는 다짐처럼 앞으로의 시간을 향한 응원이 이어졌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좋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발판 삼아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하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한 나를 기대하며 힘찬 첫발을 내디뎌보자.

#새로운시작 #2027년

3위
올해의 나에게 보내는 칭찬
"참 잘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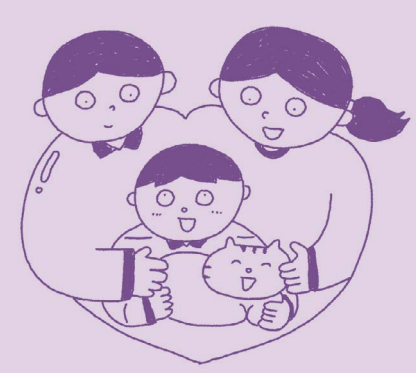
열심히 달려온 자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칭찬도 이어졌다. "지금도 충분해", "정말 잘했다", "지금처럼만 하자"는 말에는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힘을 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때로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올 한 해 부족했던 점보다 잘해낸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내일의 나에게도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자.

#잘했어 #잘하고있어 #셀프칭찬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 바쁘게 달려온 시간을 잠시 멈추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다. 잘한 일에는 스스로 박수를 보내고, 힘들었던 순간에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 올 한 해를 무사히 지나온 우정가족들이 12월의 나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일까. **정리.** 편집실 **일러스트.** JUNO

설문기간 : 2026. 09. 11.~09. 25.
응답자 수 : 1,026명
해당 설문조사는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위
새해 행복을 바라는 마음 "행복하자"



많은 우정가족이 새해의 소박하면서도 간절한 바람으로 '행복'을 꼽았다. 많이 이루는 것보다 매일 웃을 수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평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바쁜 일상에서는 행복을 멀리 있는 목표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한 끼, 잠깐의 여유처럼 일상 속 작은 기쁨도 충분히 소중하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나와 가족, 동료 모두가 더 자주 웃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행복하자 #소소한행복 #웃음

5위
무엇보다 소중한 것 "건강하자"



새해를 앞두고 빠지지 않는 다짐은 역시 건강이었다. "아프지 말자", "건강 챙기자"는 말에는 바쁜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일에 치여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뤘다면 새해에는 조금씩 생활 습관을 돌아보자. 충분히 쉬고, 잘 먹고, 몸을 움직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된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 더 활기찬 한 해를 만들어준다.

#건강하자 #건강관리 #아프지말자

6위
더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부자 되자"



"돈 많이 벌자", "부자 되자", "재테크 잘하자"처럼 경제적인 여유와 풍요를 바라는 메시지도 눈에 띄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바람을 넘어, 열심히 일한 만큼 보람을 얻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말이다. 작은 저축부터 계획적인 소비와 재테크까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보자. 새해에는 통장 잔고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함께 채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부자되자 #풍요로운내일

한 해의 끝, 12월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1



 # 서울서초우체국
 # 강소형

감사하며
잘 살았고
앞으로도
감사하며 살자.

2



 # 동대구우체국
 # 공유권

수고 많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만 더 성장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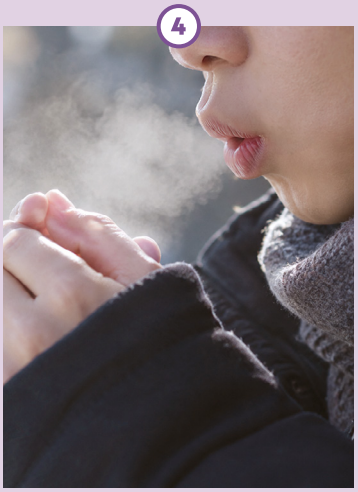
3



 # 전남지방우정청
 # 국양희

내년에는
나에게도 대운의 빛이
깃들 거야.
올 한 해도 수고했고
마지막까지 힘내자!

4



 # 포항우체국
 # 길경훈

올겨울 추운 바람도
훈훈한 바람으로
느껴질 거야.
연말에 일이 힘들어도
하나씩 천천히
꾸준하게 해내자.

5



 # 경북지방우정청
 # 김동우

올해 남은 날들도
잘 보내고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랑 행복하게 살자!

6



 # 진해우체국
 # 김미숙

집을 떠나 객지에서
살아가느라 수고했어.
매일 저녁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지,
덕분에 낯선 이 동네와
친해졌네.
넌 참 잘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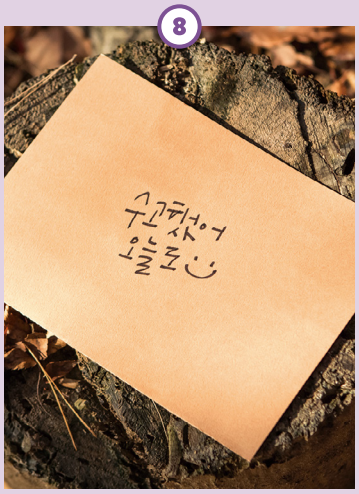
7



 # 우정정보관리원
 # 김수미

고생했어~
최선을 다했고
매 순간 행복했으면
된 거야!

8



 # 합천우체국
 # 김봉재

참 잘 버텨왔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올해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순간을 따뜻하게
바라봐주자.

9



 # 부산연제우체국
 # 송중근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았어.
잘한 일은 마음껏
칭찬하고,
아쉬운 일은 훌훌
털어버리자.
12월은 조금 천천히
나를 위해 보내보자.

10



 # 상주낙동우체국
 # 서예림

올해 가장
가치 있었던 선물은
끝까지 잘 버텨준
너라는 존재야.

11



 # 부산진우체국
 # 이영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버텨줬다!
매일 오는 작은 점의
행복을 놓치지 말자!

12



 # 창녕영산우체국
 # 이태윤

신규라
서툴렀던 순간도
많았지만,
잘 버텨온 나 자신
칭찬해~!

꾸준한 성취로 열정을 키우며 ‘만능캐’를 꿈꾸는

파주운정동우체국 황서진 주무관



경인지방우정청에서도 손꼽힐 만큼 바쁜 파주운정동우체국 우편창구. 임용 1년 차 황서진 주무관은 세심한 응대로 고객을 맞이하는 본캐와 함께 우체국 디지털 홍보 파트너, ‘우디’라는 부캐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여기에 뜨개질과 러닝이라는 취미까지. 작은 성취의 기쁨을 다음 도전으로 이어가며 ‘만능캐’ 우정인을 꿈꾸는 황서진 주무관의 열정 가득한 하루를 만나본다.

정리. 편집실 **사진.** 김성재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운정동우체국 우편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서진입니다. 2025년 10월에 임용되어 약 1년째 우편물 접수와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요. 운정동우체국은 경인청에서도 손꼽힐 만큼 고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가을걷이 기간에는 경인청 소포 물량 1위를 기록할 만큼 바쁩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고객님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해요.



Q. 일하며 보람을 느낀 순간과 어려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대기 고객이 많아 바로 모시지 못할 때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라며 기다려주시는 고객님을 만나면 큰 감사와 힘을 얻어요. 반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고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긴장되는데, 그럴 땐 선배님과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한 뒤 처리 과정을 꼼꼼히 메모해둡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오면 혼자서도 해낼 수 있도록요.



황서진 주무관이 직접 만든 제비 인형



Q. 본업뿐 아니라 우체국의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우디'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디 면접 때도 "신규 입사자인 만큼 열정은 가득한데 펼칠 곳이 없어 지원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발령지가 집이 있는 부천에서 먼 파주라 출퇴근만 반복하는 생활이 지루할 것 같기도 했고요. 평소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우체국에서의 첫 시작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도전했습니다.

Q. 이번 우체국쇼핑 추석 명절 포토세션에 모델로 참여한 소감은 어땠나요?

우체국을 대표해 모델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영광이었어요. SNS 채널을 통해 '우체국의 얼굴'로 소개되는 만큼 책임감도 느낍니다. 제 모습이 우체국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자연스럽고 밝은 모습으로 우체국의 친근한 매력을 전하려고 해요.

Q. 이번 호 주제가 '꿈과 열정'인데요. 요즘 황서진 주무관님에게 '열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거창한 도전보다는 작은 성취의 기쁨을 다음 도전으로 이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뜨개질이나 러닝처럼 꾸준히 하면 결과가 눈에 보이는 취미를 좋아하는데, 작품을 완성하거나 기록이 좋아질 때의 성취감이 '다음엔 뭘 해볼까?' 하는 열정으로 이어지거든요. 우체국을 상징하는 제비 인형도 직접 만들어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웃음) 작은 아이디어가 작품이 되는 과정에서 큰 뿌듯함을 느꼈어요.

Q. 앞으로의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맡은 업무를 잘 해내며 좋은 우정인으로 오래 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창구에서 일하는 '본캐'와 우디라는 '부캐'를 포함해서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해내는 '만능캐' 우정인이 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일하고 있는 동료 우정인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꿈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상 속 작은 도전과 소소한 행복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의 꿈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함께 꿈을 만들어가는 모든 우정인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파주운정동우체국
황서진 주무관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QR을 촬영하면 영상이 나타납니다.

※ 지면 관계상 아쉽게 모두 게재하지 못했지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키운 순간, 찰칵!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에는
좋은 순간을 더 떠올리게 됩니다.
마음을 나누면서 희망을 키웠던 우리,
그때 그 순간 BEST 컷을 소개합니다.



손끝에 내려앉은 작은 행복
– 안산우체국 김태훈



2011년 인제신남우체국 무사고 고사
– 춘천우체국 남궁병학



열심히 육아 중이에요!
– 서울광진우체국 이예림



친구들과 안 입는 옷 교환하는 정기모임
– 사외독자 장효선



그날의 희망, 그리고 첫 여행
– 제주연동우체국 홍성권



영동우체국을 응원하는 커피나눔행사!
– 영동우체국 양하나

우정 포토제닉 참여 방법

1+2월호 주제 : 한 해를 닫는 마지막 장면, 다짐으로 여는 첫 장면

1. 2026년의 기억에 남는 순간, 또는 2027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사진으로 남긴다.

※ 과거 사진도 환영합니다! (단, 인물 포함 필수)

2. 사진과 함께 짧은 코멘트를 덧붙여 사연을 신청한다.

※ 응모 시 성명과 휴대폰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연이 소개될 경우 올리브영 상품권을 드립니다.

우정 포토제닉
참여 바로가기

펜과 카메라를 들고 전국을 돌던 그 시절 사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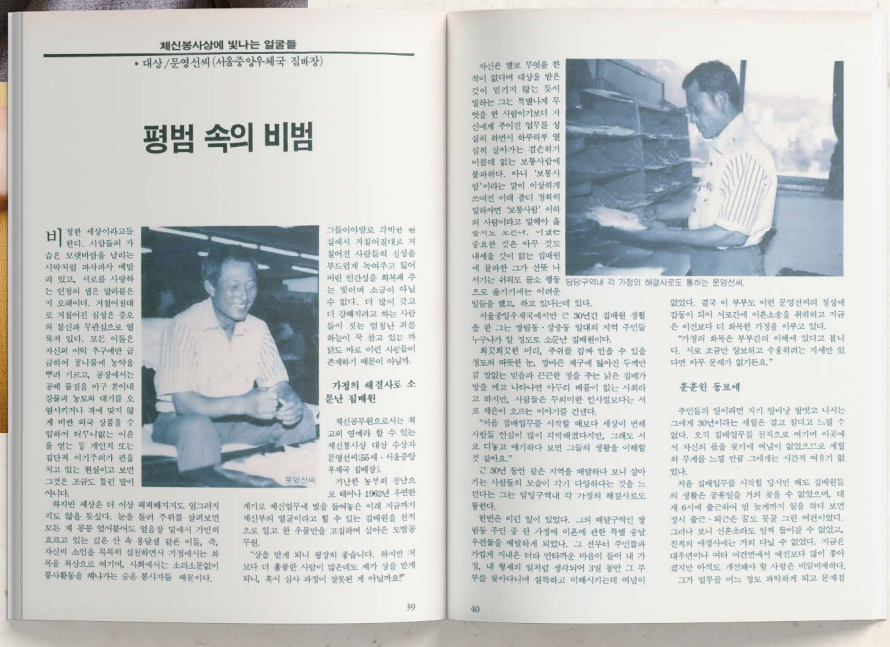
창간 80주년 특별 기획 I

김혜영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전문위원



색연필로 지면을 그리고, 원고지에 사보 기사를 꾹꾹 눌러 쓰던 시절이 있었다. 1990년 8월《체신》 기자로 시작해《정보와 통신》, 《디지털포스트》를 거쳐 《우체국과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김혜영 전문위원은 긴 시간 우정가족의 삶과 우체국의 변화를 기록해 왔다. 올해 12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가 기억하는 사보의 변화와 그 속에 담긴 사람 향기 가득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본다.

글. 편집실 **사진.** 김성재


체신봉사상에 빛나는 얼굴들
• 대상/문영선씨(서울중앙우체국 집배장)

평범 속의 비범

비 절한 세상이라고들 한다. 시샘들이 가슴은 모랫바람을 날리는 시막처럼 파삭파삭 메말라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인정의 샘은 말라붙은 지 오래이다.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진 심성은 종으의 불신과 무관심으로 멍들어 있다. 모든 이들은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여 공나물에 눈먹을 뿌려 기르고, 공장에서는 공해 물질을 마구 공이내 상품과 농토와 대기를 오염시키거나 격에 맞지 않게 비싼 외국 상품을 수입하여 허무니없는 이윤을 얻는 등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상이고 보면 그것은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피폐해지지도 잊그러지지도 않을 듯싶다.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면 모든 게 풍풍 얼어붙어도 얼음장 밑에서 가난히 흐르고 있는 깊은 산 속 용달샘 같은 이들, 즉, 자신의 소임을 묵묵히 실천하면서 기정에서는 좌목을 희상으로 여기며, 사회에서는 조리소문없이 봉사활동을 해나가는 숨은 봉사자들 때문이다.

문영선씨

그들이야말로 각박한 현실에서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진 사람들의 심성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해 주는 빛이며 소금이 아닐 수 없다. 더 많이 갖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짓는 업장난 죄를 하늘이 꾹 참고 있는 까닭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가정의 해결사도 소문난 집배원

체신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체신봉사상 대상 수상자 문영선씨(55세 · 서울중앙우체국 집배원).

기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1962년 우연한 계기로 체신업무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지금까지 체신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집배원을 천직으로 알고 한 우물만을 고집하며 살아온 모범공무원.

"상을 받게 되니 정말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도 제가 상을 받게 되니, 혹시 심사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자신은 별로 무엇을 한 적이 없다며 대상을 받은 것이 믿기지 않는 듯이 말하는 그는 특별나게 무엇을 한 사람이기보다 지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검손하기 이를데 없는 보통사람에 불과하다. 아니 '보통사람'이라는 말이 어상하게 쓰여진 이래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보통사람' 이하의 사람이라고 말해야 올바르도 모른다. 이넌은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집배원에 불과한 그가 선뜻 나서기는 쉬워도 몸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운 일들을 했고, 하고 있다는데 있다.

서울중앙우체국에서만 큰 30년간 집배원 생활을 한 그는 청림동 · 장충동 일대의 지역 주민들 누구나가 알 정도로 소문난 집배원이다.

최고회오린 머리, 주위를 김싸 안을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눈, 깡마른 체구에 털아진 두께만큼 깊었는 믿음과 끈끈한 정을 주는 낡은 집배가방을 메고 나타나면 아무리 배웅이 없는 사회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무비이면 인사말보다는 서로 제온이 흐르는 이야기를 건넨다.

"처음 집배업무를 시작할 때보다 세상이 변해 사람들 인심이 많이 각박해졌다지만, 그래도 서로 더불고 메기하다 보면 그들의 생활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 30년 동안 같은 지역을 배달하다 보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각기 다양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그는 덤덩구멍내 각 가정의 해결사로도 통한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의 배달구역인 쌍림동 주민 중 한 가정에 이혼에 관한 특별 중날우편물을 배달하게 되었다. 그 전부터 주민들과 가깝게 지내온 터라 언타까운 마음이 들어 내 가정, 내 형제의 일처럼 생각되어 갖일 동안 그 부부를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여념이 없었다. 결국 이 부부도 이런 문영선씨의 정성에 감동이 되어 서로간에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가정의 화목은 부부간의 이해에 있다고 봅니다.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훈훈한 동료애

주민들의 얼어라면 저기 일어날 말씀고 나서는 그에게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다고 느낄 수 없다. 오직 집배업무를 천직으로 여기며 이곳에서 자신의 몫을 찾기에 어념이 없었으므로 세월의 무게를 느낄 만큼 그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처음 집배업무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집배원들의 생활은 꽁꽁일을 거의 찾을 수 없었으며, 대개 6시에 출근하여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정시 출근 · 퇴근은 꿈도 못꿀 그런 여건이었다. 그러나 보니 신혼초라도 일찍 들어갈 수 없었고, 진적의 대정사에는 거의 다닐 수 없었다. 지금은 대우여나 여러 여건면에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미앙비해하다.

그가 업무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고 문제점

문영선 집배원 원고가 실린 1991년 9월호 <체신> 사보 지면



전국을 발로 뛰며 누비던 날들

대학에서 학보사 기자 생활을 했던 김혜영 전문위원은 1990년《체신》기자로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는 사진 기자가 따로 없어 취재를 갈 때 카메라까지 들고 혼자 전국을 돌아다녔다. 교통편이 지금처럼 좋지 않을 때라 소록도에 혼자 취재를 갔다가 인터뷰이 집에서 자고 온 일도 있었다. 원고대로 활자를 골라 뽑는 문선공 시절부터 사보 기자를 했지만, 힘든 점보다 좋았던 추억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문영선 집배원을 만났을 때다. 초보 기자 시절 첫 취재에서 질문마다 짧은 답만 돌아오자, 배달 현장을 따라다닌 뒤 일이 끝나고 저녁을 함께하자고 권했다. 식사 자리에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누고서야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기사가 나온 책을 보내드렸더니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잘 담아줘서 고맙다며 결혼할 때 쓰라고 수저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소중한 선물이라 아직도 간직하고 있죠."

누군가의 삶을 담으며 얻은 가장 큰 자산

전국을 누비며 집배원부터 장관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나 그들과의 인연이 하나둘 쌓였고, 그 인연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어졌다.

"지금 사보 담당자들이 우체국에 가서 취재를 하다 보면, 우체국장님들이 '김혜영 기자님 아직 있느냐'고 안부를 묻는다고 해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고맙죠."

우정문화 가치 정립, 우체국쇼핑, 고객센터, 경영지원 등 여러 부서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힘이 되어줬다.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던 시간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된 셈이다.

사보 기자로 시작해 다양한 업무를 거치는 동안에도 '김혜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여성 최초'라는 기록을 여러 차례 써 내려간 그의 궤적은 지금도 후배들에게 소중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시대를 넘어 이어질 '사람'과 '기록'의 힘

시대에 따라 모습과 역할은 달라졌지만, 그 시절 우체국과 사람들의 모습은 사보에 고스란히 남는다.

"당시 사보는 시대의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정보와 통신》은 우리나라 IT 급변 시대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컸다고 봅니다. 사보는 조직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체국이 어떤 조직인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혜영 전문위원은 앞으로도《우체국과 사람들》이 종이 사보로서의 정겨운 역할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특히 우체국 창구를 지키는 직원부터 우체국을 찾는 고객, 퇴직한 우정가족까지 누구나 쉽게 펼쳐볼 수 있는 매체로 오래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체국 사보는 6·25 전쟁 같은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은 우리의 역사잖아요. 이 소중한 기록의 맥이 끊이지 않고 우체국 창구마다 계속 꽂혀 있을 수 있도록, 후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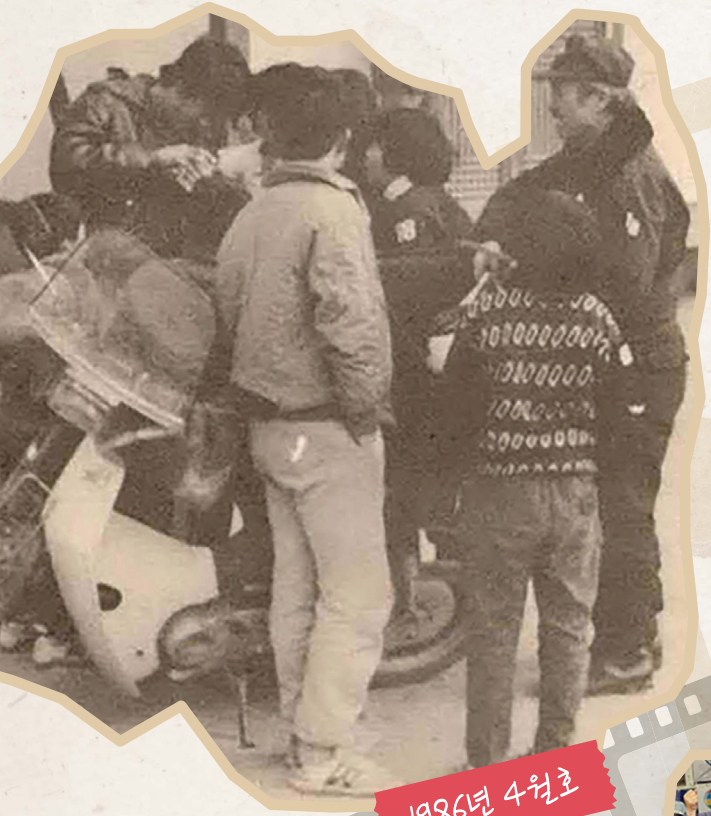


우체국 사보에서 발견한 따뜻한 나눔의 풍경

창간 80주년 특별 기획!!

집배원의 이웃돕기부터 직원들이 직접 문을 연 일일찻집,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과 연탄 배달까지. 우체국 사보에는 오래전부터
나눔을 실천해 온 우정인들의 모습이 기록돼 있다. 그 시절 사보 속 기록을 따라
우체국이 실천해온 온기 가득한 나눔의 풍경을 돌아본다.

정리. 편집실 **자료.** 우체국과 사람들 홈페이지



1986년 4월호
고마운 '이웃 아저씨'로 불리던
안동우체국의 심목섭 집배원



1990년 1월호
중앙우체국 부녀회의
일일찻집



한사랑나누기
무료급식 행사
2004년 12월호



2014년 7월호
우정사업본부장배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



2015년 11월호

저소득층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박물관 나들이



2022년 8월호

동대문우체국 제비특공대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



2025년 12월호

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의 아름다운 인생 한 컷

우체국에는 언제나 이웃들을 위해 묵묵하게 사회공헌을 실천해 온 이들이 있었다. 1984년 우정창시 100주년을 계기로 제정된 '체신봉사상'은 현장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이어온 우정인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통로가 되었다. 당시 사보에는 외딴 탄광촌이나 오지 마을을 누비며 우편물 배달은 물론, 주민들의 문패를 달아주고 어려운 노인과 이웃을 가족처럼 살핀 집배원들의 사연이 가슴 뭉클하게 담겼다.

개인의 헌신을 넘어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모은 나눔도 이어졌다. 1990년대 사보에는 직원들이 뜻을 모아 일일찻집을 열고, 그 수익금으로 지역 복지시설이나 장애아동 보호시설을 찾아 선물을 건네는 등 온정을 나누는 풍경이 지면을 따뜻하게 채웠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나눔이 더욱 다양한 공익사업으로 확대됐다. 백혈병·소아암 환아 가족을 위한 쉼터 지원, 어르신 무료급식, 연탄 배달, 벽화 그리기, 장수사진 촬영 봉사, 박물관 나들이 등 현장 중심의 나눔이 더해졌다. 여기에 문화 공연 관람 지원, 전국휠체어농구대회 후원에 이르기까지 이웃의 일상과 맞닿은 세심한 지원으로 온기의 폭을 넓혔다.

시대에 따라 나눔의 모습은 변해왔지만, 오래된 사보 속 페이지마다 새겨진 우정인들의 따뜻한 진심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온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겨울에는 왜 감기에 더 잘 걸릴까?

참조

"콧속 온도 '5도'만 낮아져도 면역력 뚝… '호흡기 건강 지키는 방법은?'", 하이닥, 2026. 1. 23.
"여름만큼 중요한 겨울 습도 관리…겨울철 실내 습도", MBN뉴스, 2024. 12. 17.
"지긋지긋한 '겨울 콧병' 물리치는 법 4가지", 헬스조선, 2024. 1. 7.



겨울에 감기 환자가 많은 것은 정말 추위 탓일까? 감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추위가 아니라 바이러스다. 하지만 추운 날씨는 코와 호흡기의 방어력을 떨어뜨리고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어떻게 하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올겨울,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본다. **정리.** 편집실

추위가 감기를 부르는 진짜 이유

감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따라서 추위 자체가 감기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겨울만 되면 감기에 잘 걸리는 걸까? 추운 날씨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인 코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실내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도 늘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코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데, 차가운 공기에 노출돼 콧속 온도가 약 5℃ 낮아지면 코 점막의 항바이러스 방어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여기에 겨울철 특유의 생활 패턴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추울수록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진다.

코 점막의 방어력이 낮아지고,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늘어나는 생활환경이 겹치면서 겨울은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기 쉬운 계절이 된다. 감기를 일으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바이러스지만, 추위는 우리 몸의 방어력을 떨어뜨리고 바이러스에 노출될 환경을 만들어 감염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마스크와 실내 습도, 호흡기 질환의 숨은 방패

겨울철 감기 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습도 관리이다. 건강한 호흡기 환경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실내 습도는 40~60% 정도다. 난방기를 가동하면 실내 습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코와 목의 점막이 건조해지고, 바이러스나 외부 물질의 침입에 취약해질 수 있다. 특히 습도가 낮을수록 호흡기 바이러스의 생존과 전파가 쉬워질 수 있어 겨울철에는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 습도를 관리할 때는 습도계로 수시로 확인하면서 가습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다만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 역시 감기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마스크를 쓰면 차갑고 건조한 바깥 공기가 코에 직접 닿는 것을 줄여 코 점막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이 많은 실내에서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겨울철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평소 생활환경과 건강 습관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차갑고 건조한 겨울, 일상 속 작은 관심으로 호흡기 건강을 지켜보자. 건강한 겨울을 만드는 힘은 생활 속 실천에 있다.

감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를 먹어야 빨리 낫는다? ✖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감기 자체를 치료하거나 회복을 빠르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균 감염이 함께 발생했거나 세균성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다.

Q. 감기에 걸렸을 때 땀을 빼면 빨리 낫는다? ✖

땀을 많이 내는 것이 감기를 치료한다는 근거는 없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중요하며, 고열이 있다면 무리하게 이불을 덮어 체온을 높이지 않는 것이 좋다.

Q. 감기에 걸리면 비타민 C를 많이 먹을수록 좋다? ✖

비타민 C를 평소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의 지속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타민 C를 많이 먹는다고 감기 발생 자체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기에 걸린 뒤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이 증상을 줄인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고궁이 이렇게 힙했나? '힙트래디션'의 다음 장

한복을 입고 사진만 찍던 고궁 나들이가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달빛을 따라 고궁을 걷고 궁중 다과를 맛보며 공연과 전시까지 즐긴다. 고궁의 역사와 공간에 새로운 콘텐츠를 입힌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고궁은 과거를 보존하는 장소를 넘어 전통을 새롭게 경험하는 문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옛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간, 요즘 고궁의 새로운 풍경을 만나보자. 글. 편집실





#1 걷고 맛보고 느끼는 고궁 나들이

고궁을 즐겁게 누리는 체험행사가 올해도 다양하게 진행됐다. 창덕궁에서는 달빛 아래 전각과 후원을 거니는 '달빛기행'이, 경복궁에서는 조선시대 궁중 다과를 맛보는 '생과방'이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또한 창덕궁에서 열린 '성정각, 왕세자의 하루 - 매일 한 걸음, 왕이 되는 길'은 전시와 연극, 체험을 통해 왕세자의 배움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과거의 흔적을 눈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걷고 맛보고 느끼며 전통을 경험하는 것, 요즘 고궁 나들이가 더욱 특별해지는 이유다.

#2 고궁에서 만나는 움직이는 역사

고궁에서는 눈으로만 보는 관람을 넘어 역사 속 장면을 생생하게 만나는 경험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전통 복식과 무기, 깃발을 갖춘 행렬이 궁 안팎을 누비고, 당시의 의식과 순찰 모습을 재현하며 관람객을 조선시대로 이끈다. 경복궁에서 3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리는 '수문장 순라의식'도 그중 하나다. 조선시대 수문장과 수문군의 순찰 모습을 재현하는 행사로, 정적인 문화유산에 이야기와 움직임을 더해 아득한 역사를 눈앞으로 불러온다.

참조
“매일 한 걸음, 왕이 되는 길”… 창덕궁 성정각의 초대, 아시아경제, 2026. 9. 10.
“조선시대 궁궐과 도성 안전 책임졌던 경복궁 순라군이 떴다”, 뉴시스, 2026. 3. 1.
“주말에 궁궐 탐방 어때요?”… ‘궁궐역사문화답사’, 20일부터 모집, 헤럴드경제, 2026. 8. 17.
“딱 12일 동안 열리는 ‘이곳’…힙하게 ‘궁궐 속 독서’ 즐겨볼까”, 농민신문, 2026. 10. 2.





#3 고궁, 아는 만큼 다르게 보인다

고궁을 즐기는 방법이 역사와 이야기를 알아가는 방향으로도 넓어지고 있다. 단순히 건축물을 둘러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건축물에 담긴 의미와 왕실의 생활상을 깊이 이해하려는 것이다. 서울역사편찬원이 11월 22일까지 운영하는 ‘궁궐역사문화답사’는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을 역사학자와 함께 둘러보며 고궁의 역사와 왕실 문화, 건축적 특징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같은 건축물도 어떤 역사를 품고 있는지 알고 나면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온다.

#4 책과 함께 쉬어 가다

고궁은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을 넘어 잠시 머물며 여유를 누리는 장소로도 변하고 있다. 창덕궁 후원의 작은 서재 선향재에서 가을을 맞아 운영한 ‘고궁독서’는 고즈넉한 궁에서 책을 읽으며 특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전통 건축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책장을 넘기다 보면, 익숙한 독서도 색다른 경험이 된다.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공간에 머물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역시 고궁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이다.





차가운 계절에 피어나는
따뜻한 마음

우정사업본부 X KAC 한국공항공사

사보 협업 프로젝트

지역의 첫 얼굴과 든든한 이웃, 공항과 우체국을 함께 만난 2년

2025년과 2026년 사보에서는 한국공항공사의 ≪에어포트 포커스≫와 ≪우체국과 사람들≫이 손을 잡고 지역 곳곳을 찾았다. 전국 주요 공항과 우체국이 함께 전해온 지역의 숨은 매력. 그간 지면에 소개했던 다채로운 순간들을 한데 모아 돌아본다. **정리.** 편집실 **사진 제공.** 한국공항공사



● 2025

1+2월호
울산공항+울산우체국



새해의 첫 해를 만나는 간절곶과 다시 비상을 꿈꾸는 울산공항, 그리고 127년의 역사를 이어온 울산우체국이 함께 실렸다.

5+6월호
여수공항+여수우체국



섬과 바다를 잇는 여수공항과 함께 지역민과 소통하며 120년의 역사를 이어온 여수우체국의 다양한 모습을 만났다.

9+10월호
포항경주공항+경주우체국



역사와 혁신을 잇는 포항경주공항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주우체국. 경주의 명소와 APEC 정상회의 준비를 들여다봤다.

1+2월호 울산공항 울산우체국
5+6월호 여수공항 여수우체국
7+8월호 김포국제공항 서울중랑우체국
9+10월호 포항경주공항 경주우체국
11+12월호 양양국제공항 양양우체국



• 2026

1+2월호
청주국제공항+청주우체국



2년 연속 이용객 400만 명을 넘어선 청주국제공항과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청주우체국의 이야기를 전했다.

3+4월호
제주국제공항+제주우체국



아시아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제주국제공항, 그리고 세심한 고객 서비스와 끈끈한 동료애를 자랑하는 제주우체국을 소개했다.

5+6월호
원주(횡성)공항 + 횡성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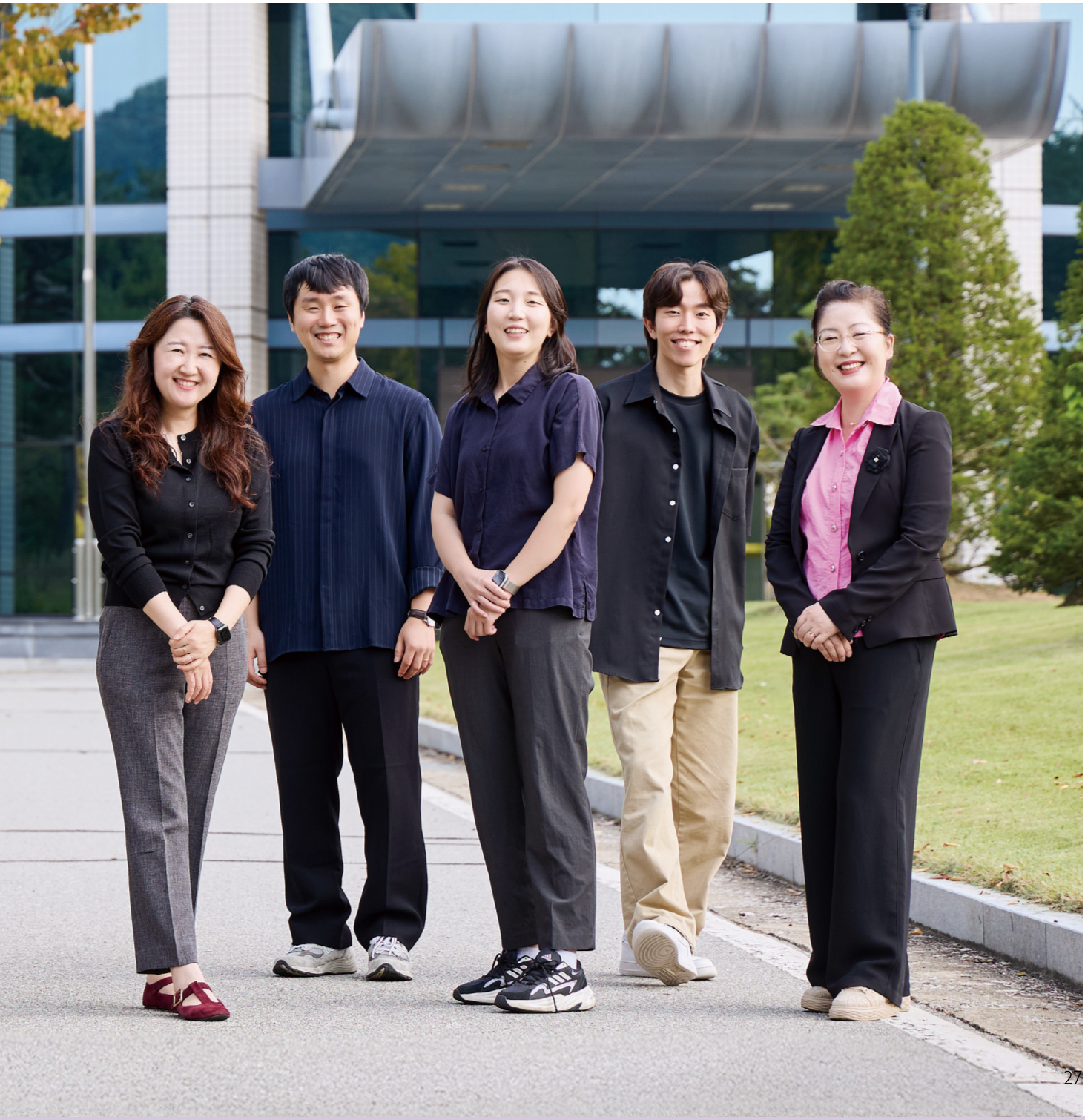
강원 산간의 특별한 매력을 품은 원주공항과 129년의 역사를 이어온 횡성우체국이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담았다.

1+2월호 청주국제공항 청주우체국 → 3+4월호 제주국제공항 제주우체국 → 5+6월호 원주(횡성)공항 횡성우체국 → 7+8월호 광주공항 광주광산우체국 → 9+10월호 김해국제공항 부산강서우체국

우정인의 내일을 키우는 곳
우정인재개발원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 숲에 둘러싸인 우정인재개발원은
우정인의 배움과 성장이 이어지는 특별한 공간이다. 교육을 위해 이곳을 찾은 우정인들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쌓고, 공기 맑은 쾌적한 환경에서 몸과 마음을 채우고 간다.
1900년 우무학당으로 시작해 120년이 넘는 우정교육의 역사를 이어오며 새로운 시대의
인재를 키워가는 곳, 우정인재개발원을 찾았다. **글.** 편집실 **사진.** 김성재, 우정인재개발원



배움과 쉼이 함께하는 우정인의 배움터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교육기관으로, 전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정사업 정책과 서비스, 우편·예금·보험 등 직무지식과 리더십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핵심 인재 양성기관이다. 신규 임용자 양성교육을 비롯해 우편·금융 등 직무교육, 관리자·리더십 교육, AI·디지털 역량 교육까지 우정 공무원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이 이곳에서 펼쳐진다. 약 87명의 직원이 교육생 한 명 한 명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집합교육 104개 과정 9,335명, 이러닝교육 998개 과정 146만 1,143명이 이곳에서 배움을 이어 갔다.

1999년 용산에서 천안으로 이전한 뒤 공무원 교육기관 최초로 사이버교육을 도입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집합교육 중심에서 비대면 디지털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시대를 한발 앞서 준비해 온 인재원. 특히 모든 직원이 교수요원으로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습하는 조직문화는 인재원의 가장 큰 힘이다.



1999년 천안으로 이전한 우정인재개발원



다채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식당



창구 실습을 할 수 있는 가상우체국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습하는 조직문화는 우정인재개발원의 가장 큰 힘이다.

오형근 우정인재개발원장은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구성원의 성장과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은 다름 아닌 강의실이다.

"새내기 우정인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야간까지 남아 실습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우정사업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생이 사랑하는 우정인재개발원의 곳곳

인재원은 강의동과 생활관, 식당, 체육시설이 모여 있어 교육 기간 중 이동의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교육생과 직원들에게 인기 만점인 공간은 식당이다. 매일 다채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명절이나 복날에는 삼계탕 같은 특식을 준비해 식사 시간의 즐거움을 더한다.

교육기획과 황진희 주무관은 "배움에 집중하면서도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자랑거리"라며 인재원 곳곳의 매력 가득한 공간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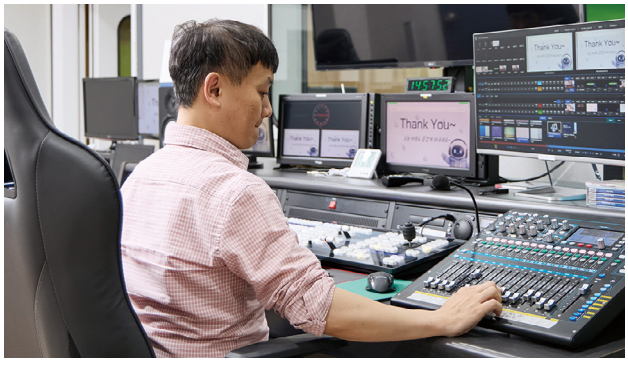
"수영장, 볼링장을 갖춘 체육관과 커피 한 잔으로 소통할 수 있는 휴게실은 교육생들이 평소 즐겨 찾는 곳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곳이라 치유숲길을 걸으며 잠시 숨을 고르는 교육생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숲속 데크에서 걷기 명상과 호흡 명상을 즐길 수 있는 '마음 쉼길'과 '마음 보듬길'은 쉬는 시간이나 식사 후 교육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인재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 중 하나는 우정박물관이다. 1884년 우정총국 설립부터 한국 우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야외 우편테마공원의 4미터 높이 밀레니엄 우체통과 102년 역사의 우편열차 전시관은 교육생은 물론 일반 관람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우정인재개발원의 곳곳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QR을 촬영하면 영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챙김 수업'을 하는 비채누리



교육 영상을 촬영하는 디지털스튜디오



야외 우편테마공원에 있는 우편열차 전시관

AI 시대를 이끌 우정인재를 키우다

인재원의 핵심 강점은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다. 우정 조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자 기본교육'을 통해 직렬별 실무와 공직가치를 배우고, 바쁜 현장에 지친 직원들이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챙김 수업'으로 통합적 케어를 제공한다.

나아가 올해는 'AI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우정인재개발원'을 비전으로 내걸고 현장 중심의 AI 교육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규자 교육 내 AI 교과목 확대, 단계별 AI 전문 교육,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올해 8월 말 현재 6만 3,557명이 AI 교육을 받았으며, 지난해 말(2만 1,444명)보다 약 3배 많은 우정가족이 AI 역량을 키웠다.

오형근 원장은 "AI 교육을 하는 교수요원과 교육 담당자들이 먼저 AI 역량을 강화하고 AI 학습도구를 개발하면서 AI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더 효율적이고 생생한 교육을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실습과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확대해 실제 업무와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실전형 AI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지식 전달을 넘어 우정 공무원의 전 생애주기를 함께하며 성장을 뒷받침하는 우정인재개발원. 시대의 변화를 한발 앞서 준비하는 이들의 쉼 없는 노력이 있기에 우정사업의 내일은 계속 환하게 성장한다.

반찬을 전하며 어르신의 안부를 살펴요

도봉우체국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반찬 배달 현장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누군가가 건네는 안부는 안전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체국은 전국을 거미줄처럼 잇는 물류·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취약계층 어르신의 삶에 다가가는 '취약계층 도시락·반찬 배달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집배원들이 복지관의 정성 어린 도시락과 반찬을 어르신들에게 배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하루. 점점 날씨가 스산해지는 10월의 어느 날, 도봉우체국의 도시락·반찬 배달 현장에는 어르신과 집배원 사이 따뜻한 인사와 마음이 오갔다. **글.** 편집실 **사진.** 김경수





이른 아침, 온기가 가득한 우체국

아침 7시, 오늘 도봉우체국의 하루는 유달리 바쁘게 시작된다. 복지관에서 전달받은 먹거리를 배달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배달해야 할 곳만 90가구. 어르신들에게 드릴 냉동 갈비를 꺼내 정성껏 포장하고, 따뜻한 빵도 하나씩 챙겨 담는다. 먹거리를 빠짐없이 확인한 뒤에는 소포 라벨을 붙이고 전산 분류까지 마쳐야 한다. 손길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준비에만 꼬박 한 시간가량이 걸린다. "기관에서 보내주신 음식은 우체국에서 자체적으로 다 박스 포장을 합니다." 주양준 집배실장의 설명처럼 배달 준비는 상자를 옮겨 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르신에게 전해질 먹거리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것도 집배원들의 몫이다. 포장이 끝난 상자는 일반 소포와 함께 배달을 기다린다.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배달이 시작되고, 집배원들은 익숙한 길을 따라 어르신들의 집으로 향했다. 음식을 실은 우체국 차량이 도착한 곳은 가파른 산동네.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골목길이지만, 매일 이 길을 지나는 집배원들에게는 익숙한 배달길이다. "항상 다니는 길이지만 어르신들께 드릴 도시락을 들고 올 때면 마음가짐이 한층 남달라집니다. 매일 지나치던 대문 하나, 골목길 귀퉁이 하나도 어르신이 잘 계실까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됩니다." 지난 9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전해 드리는 날이다. 반찬을 기다리는 어르신께 향하는 홍원기 집배원의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힘차다.



도시락과 반찬에 실어 전하는 따뜻한 안부

어르신 댁에 도착한 집배원들은 정성스레 포장한 음식을 건네며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다.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별일 없으시죠?”라고 묻는 집배원들의 안부 인사에, 집에 계신 어르신들은 “바쁜 배달 업무도 힘들 텐데 이렇게 안부까지 챙겨주니 정말 고맙다”며 인사를 건넨다. 음식을 건네받는 것도 고맙지만, 안부를 묻는 정겨운 한마디가 어르신들에게는 더없는 반가움이다. 홍원기 집배원은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르신들에게 반찬 배달 서비스를 하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

“어르신들이 고생한다며 물이나 음료수를 챙겨주실 때가 있어요. 저희의 작은 정성에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큰 마음을 내어주셔서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르신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음식을 문 앞에 안전하게 두고 돌아선다. 복지관에서 배달 일정과 시간대를 어르신들께 미리 안내한 덕분에 집을 비우더라도 큰 차질이 없다. 음식을 두고 온 뒤에는 복지관을 통해 소포 도착 안내 문자가 즉시 발송된다.

주양준 집배실장은 “도봉우체국은 2018년부터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을 위해 주거 환경 개선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웃을 찾아뵙는 일이 낯설지 않다”고 말한다. 장판을 바꾸고 집 안을 청소하며 어르신들의 삶터에 온기를 더했던 경험이 이번 도시락 배달 서비스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우체국과 복지관이 함께 만든 배달길

도봉우체국은 우체국공익재단에서 추진하는 '집배인프라를 활용한 도시락 배달 시범 운영' 공문을 접하고 이번 사업이 지역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판단해 참여를 결정했다. 안주연 물류실장은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할 협약 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2018년부터 봉사활동으로 인연을 이어온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먼저 만났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상해 위험을 보장해 주는 우체국공익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도 함께 안내했다. 복지관에서도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마침 취약계층에게 식생활 지원을 희망하는 후원처가 있어 협력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복지관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체국공익재단이 우편요금을 지원하며, 우체국은 집배망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협업의 체계가 갖춰졌다.

지원을 확대하고자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의 문도 두드렸다. 이곳에서는 후원받은 양념갈비를 제공하기로 했고, 기존에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배달하던 방식을 우체국 집배망으로 통합하면서 협업 구조가 더욱 구체화되었다. 지난 9월 첫 배달을 마친 후, 두 복지관에서 안주연 물류실장에게 반가운 후기를 전해 주었다.

"복지관 담당자님들이 '믿을 수 있는 우체국에서 배달까지 꼼꼼하게 진행해주니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희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9월에 이어 이번 10월 배달 서비스에도 복지관은 대상자에게 배달 일정을 미리 알리고, 우체국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집배원이 어르신 집에 방문해 음식을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팀워크를 맞춰가고 있다.



MINI INTERVIEW



"우체국 덕분에
복지 현장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최대호 팀장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Q1. 이번 사업을 우체국과 협업하면서 복지관이 느낀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을 고민해 왔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는 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는 집배원분들과의 협업은 매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었습니다. 복지관의 복지 서비스 전문성과 우체국의 촘촘한 지역 기반 전달체계가 만나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더욱 세심하고 신속하게 찾아뵐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Q2. 우체국에서 전해준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다른 지원이나 도움이 간 사례도 있나요?

배달 과정에서 어르신의 주거 환경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이 복지관으로 공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봉우체국 봉사단에서 한 어르신의 집 안 청소 및 도배 등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MINI INTERVIEW



"집배원의 안부 살핌으로
현장의 안전망이
더 두터워졌습니다"

서경진 팀장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Q1. 기존 복지관 자체 배달과 비교했을 때, 협업 후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반찬을 전해주셨지만, 가파른 언덕길이나 무거운 물품 배달, 긴급 상황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골목길에 익숙한 집배원분들이 참여하면서 배달이 안전해졌고, '안부 살핌 체크리스트'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과 주거 상태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2. 배달 현장에서 집배원이 작성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복지 서비스와 어떻게 연계되나요?

체크리스트에서 건강 악화나 연속 부재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전담 사회복지사가 즉시 가정을 방문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 의료 지원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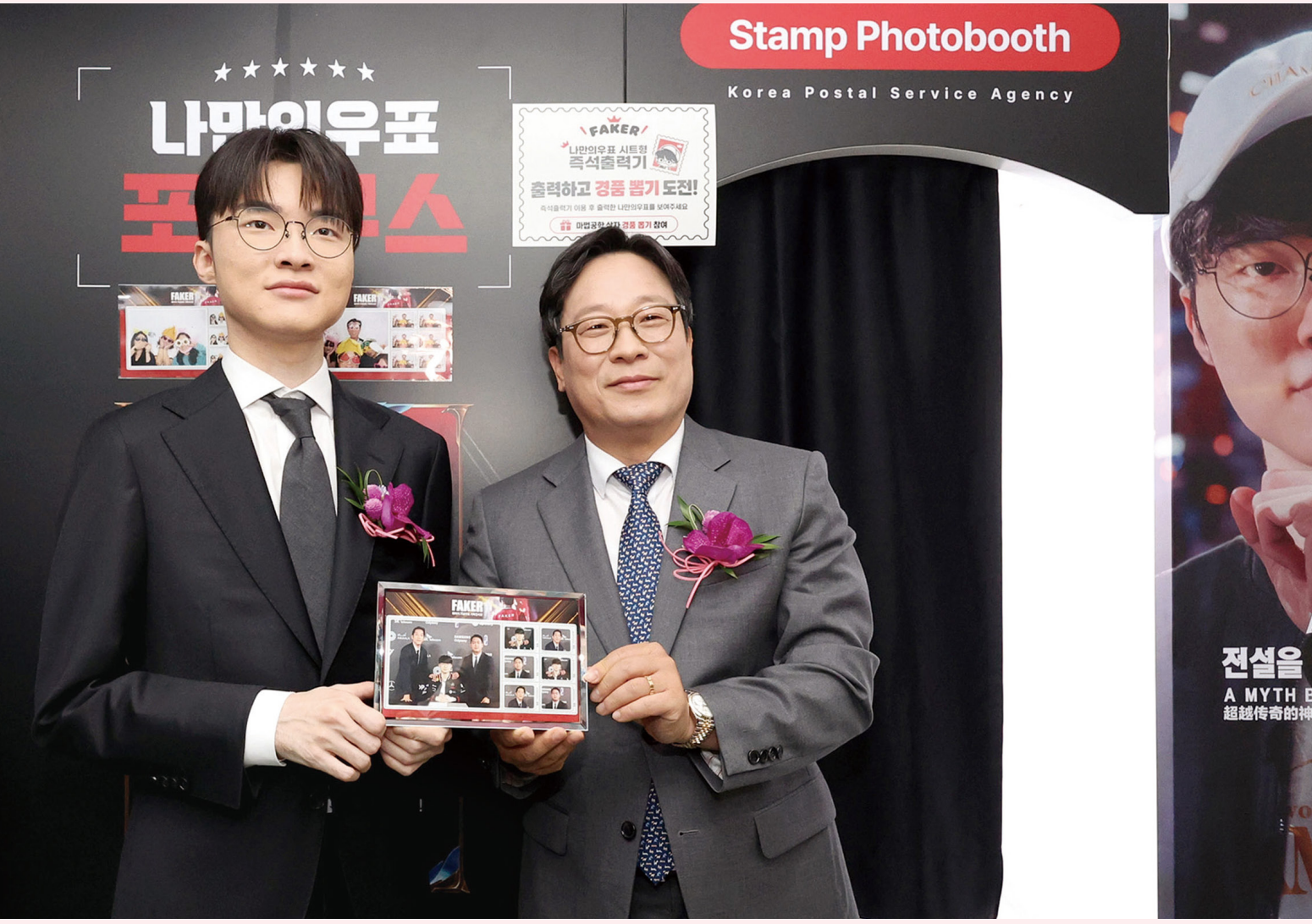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나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도시락과 반찬을 배달하며 어르신의 안부까지 살피는 이 사업은 단순한 배달 서비스와는 조금 다르다. 집배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음식을 전하며 어르신들의 생활 상태와 건강, 안부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상 징후나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구청 및 복지관과 신속히 공유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생활 밀착형 파수꾼' 역할을 담당한다. 우체국의 촘촘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사업이다. 도봉우체국은 이 서비스를 우선 2027년 12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처음에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집배원들의 부담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르신에게 한 끼 식사와 반찬을 전하고 안부까지 살필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집배원들의 따뜻한 진심은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이 가닿았다. 주양준 집배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체국과 지역 주민의 정이 한 층 더 끈끈해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한다.

"얼마 전에는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우체국으로 직접 과일이나 음료수 같은 간식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배달 서비스로 찾아와 준 집배원에게 전해달라'며 선물을 맡기고 가시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때마다 저희가 오히려 더 큰 힘과 보람을 얻습니다." 정성껏 전달한 한 끼 식사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으로 되돌아오며, 도봉우체국은 오늘도 지역사회를 가장 가까이에서 잇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도봉우체국의
도시락·반찬 배달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스포츠 전설의 기록, 우표로 만나다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 '페이커' 기념우표 기획전시관 개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이스포츠의 전설로 불리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발자취가 기념우표로 탄생했다. 우표 속 영광의 순간을 만나는 것은 물론, 게임 체험과 응원 메시지 작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문을 열었다. 지난 10월 10일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 열린 페이커 기념우표 기획전시관 개관식 현장을 찾았다. **글.** 편집실 **사진.** 이대원

전설 페이커와 함께 한 개관식 현장

2013년 데뷔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뛰어난 경기력과 꾸준한 노력으로 세계 이스포츠 무대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쌓아왔다. 우정사업본부는 그의 발자취를 기념하고자 페이커 기념우표 전지 14만 장과 우표첩 등을 발행했다. 우표에는 세계 이스포츠의 전설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가 써 내려온 주요 순간과 수상 순간 환호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개관식은 페이커 선수의 주요 경기와 우승 순간을 담은 영상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의 개회사와 페이커 선수의 축사, 신재용 우정디자인실장의 우표 소개가 진행됐다. 이번 기념우표에는 국민 선호도 조사 1위인 '아리'를 비롯해 '요네', '사일러스', 2025년 우승 기념 '갈리오'까지 네 가지 캐릭터를 담았다. 페이커 선수와 팬들의 관심이 함께 반영됐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도 선보였다. 화면에 나타나는 바위게를 빠르게 클릭하는 반응속도 대결 게임존에서는 페이커 선수가 직접 실력을 선보였고, '나만의 우표' 즉석 출력기에서는 페이커 선수의 사진을 담은 세상에 하나뿐인 우표를 만들 수 있었다. 2027 LOL 월드 챔피언십을 앞두고 페이커 선수에게 전달될 응원 편지를 쓰는 공간과 명언 포토존도 마련됐다.

국내외 관광객 사로잡을 새로운 우표문화 공간으로

전시관 안쪽에서는 페이커 선수의 또 다른 이야기가 관람객을 맞았다. 'AI 메시지 나무'는 키오스크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디지털 잎사귀가 피어나는 공간으로,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과 페이커 선수가 직접 첫 메시지를 남겼다. 이 밖에도 우승 영상 6종과 트로피 이미지를 활용한 촬영 콘텐츠로 페이커 선수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전시관 한편의 커리어 타임라인 월은 2013년 데뷔부터 이어진 페이커 선수의 주요 기록을 한눈에 보여줬다. 쇼케이스에는 T1과의 재계약 기념 사인 유니폼과 마우스, 마우스패드 등 소장품이 전시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체험 공간에서는 누구나 직접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다양한 전시를 통해 페이커 선수의 업적과 그 뒤에 쌓인 노력과 시간도 돌아볼 수 있었다. 관람을 마친 뒤에는 서울중앙우체국 1층 광장에서 기념우표 증정식이 열렸다. 박인환 본부장이 페이커 선수에게 특별 제작한 기념우표를 전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우표박물관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이자 우표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페이커 기념우표는 10월 23일부터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 판매되고 있다.







밝은 빛과 든든한 힌뢰가 만나다

우체국예금 신규 명예홍보대사 LIGHTSUM(라잇썸)











우체국예금이 신규 명예홍보대사로
걸그룹 라잇썸을 맞이하며 젊은 세대와의
더욱 친밀한 소통에 나섰다.
밝은 에너지와 다양한 매력으로 무대를
넓혀가는 라잇썸과 든든한 우체국예금이
만들어갈 신선한 시너지. 앞으로
우체국예금 신규 명예홍보대사로서
라잇썸의 포부를 전한다.

글. 편집실 **사진 제공.** 큐브엔터테인먼트

라잇썸, 우체국예금의 새로운 얼굴이 되다

라잇썸은 '밝은 빛(LIGHT)들이 하나가 되어(SUM) 온 세상 모두에게 닿을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걸그룹이다. 멤버들은 라잇썸을 "여섯 명의 다양한 매력이 합쳐져 많은 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고 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룹"이라고 소개했다. 각자의 개성은 뚜렷하지만 함께할 때 오히려 서로의 매력이 돋보인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탄탄한 퍼포먼스와 라이브 실력, 끈끈한 팀워크까지 더해져 라잇썸만의 색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체국예금 명예홍보대사로 선정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신뢰'였다. 우체국예금을 한 단어로 표현해달라는 질문에도 "돈을 안전하게 맡겨둘 수 있고, 필요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든든한 느낌이 든다"며 '든든함'을 꼽았다. "명예홍보대사가 되려면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체국예금 명예홍보대사를 통해 신뢰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밝은 에너지로 우체국예금을 더 가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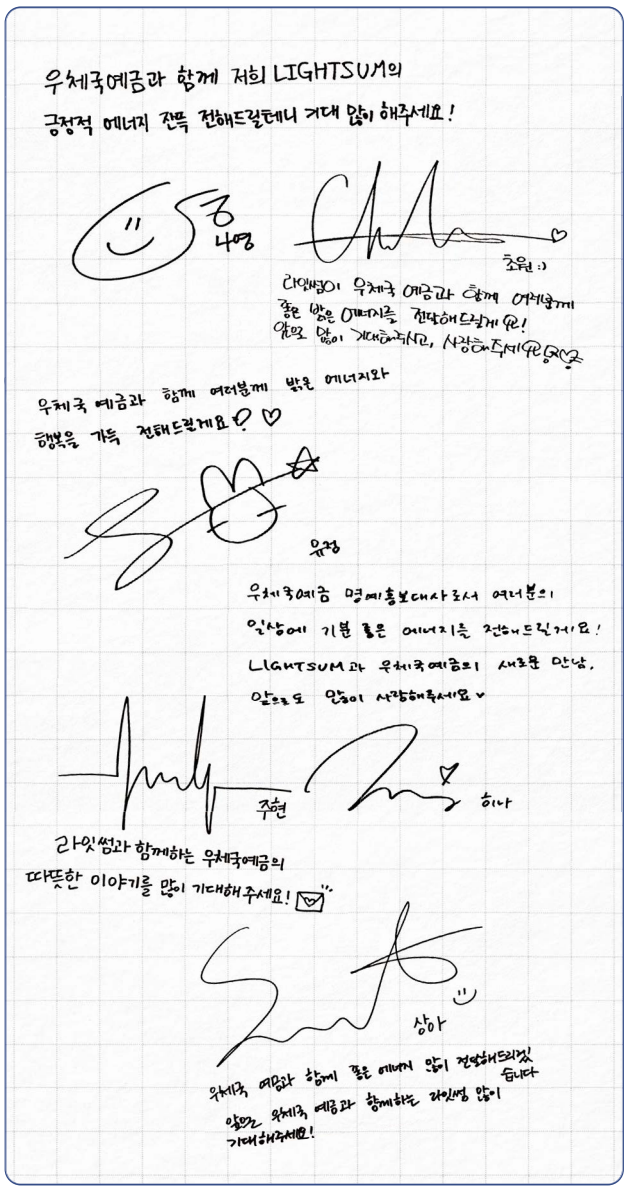
라잇썸이 그리는 우체국예금 홍보대사의 모습은 어떨까. 라잇썸은 우체국예금이 가진 '친근하고 믿음직한 이미지'에 자신들의 밝은 에너지를 더한다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저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우체국예금을 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 뵙고 싶다"는 말에서 앞으로의 홍보대사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엿볼 수 있었다. "저희만의 밝은 빛을 세상에 전하자는 게 팀명인 만큼, 우체국과 함께 라잇썸이 집배원이 되어서 전국 곳곳에 밝은 에너지를 나눠 드리며 무대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 9월 23일 일본 데뷔라는 새로운 출발을 알린 라잇썸은 더 다양한 곳에서 많은 팬을 만날 계획이다. 새로운 무대와 음악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라잇썸. 앞으로 우체국예금에 라잇썸의 밝은 에너지가 더해져 고객에게 한층 친근하게 다가가길 기대한다.





✦ 라잇썸 여섯 멤버가 전하는 한 마디!



지역의 오늘이 국민의 내일이 됩니다

믿음에 40년, 생생 상생 우체국쇼핑

지역의 좋은 상품을 국민 곁으로 전해온 우체국쇼핑이 올해 40번째 생일을 맞았다.
1986년 산지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잇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이제는 지역의 특산물부터 전통시장 상품까지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40년의 경험 위에 새로운 서비스를 더한 우체국쇼핑의 오늘을 만나보자.

정리. 편집실 **사진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국의 유명 특산품, 안방까지 배달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1998. 7. 22.)

지역의 좋은 상품을 국민 곁으로

1986년 농수산물 수입 개방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 시름하던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 우체국의 물류와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지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자'는 한 우체국 직원의 작은 아이디어가 싹을 틔웠다. 순창 고추장, 완도 김 등 8개 대표 특산물로 첫발을 내디딘 '우편주문판매'는 그렇게 우체국쇼핑의 시작이 되었다.

올해로 출범 40주년을 맞은 우체국쇼핑은 농어가와 중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히고, 지역 곳곳의 우수상품을 국민의 안방까지 전하며 대한민국 대표 공공 쇼핑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들은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우체국쇼핑'에 접속만 하면 전국 방방곡곡의 특산물을 한눈에 살펴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40년의 경험에 새로운 서비스를 더하다

우체국쇼핑은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경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40주년을 맞아 상품 선택부터 체험, 선물, 알뜰한 구매까지 쇼핑의 편의를 더해주는 네 가지 서비스를 소개한다.



✔ **우체국쇼핑 특산물 브랜드 • 믿고 고를 수 있는 품질 보증 표시 강화**

우체국쇼핑이 오랜 시간 신뢰를 이어올 수 있었던 배경은 꾸준한 품질관리에 있다. 우체국쇼핑에서 별 모양의 '특산물 브랜드'는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을 거친 우수 특산물에만 부여되는 표시로, 수많은 상품 가운데 믿고 고를 수 있는 기준이자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상징이다.



✔ **맛보기&써보기 • 배송비만 내고 경험하는 통 큰 혜택**

2025년 특별 이벤트로 선보였던 '통으로! 맛보기&써보기'가 고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돌아왔다. 배송비만 내고 인기 상품을 직접 체험한 뒤 상품평을 남기는 기획전으로, 선착순 한정 수량으로 진행돼 매회 조기 마감될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답례 온라인상품권 • 받는 이의 취향까지 존중하는 선물**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우체국쇼핑 '답례 온라인상품권'은 결혼·조문 등 상황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5천 원부터 5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권으로 구성돼 있다. 대량 발송도 간편해 경조사 답례 선물로 활용하기 좋다.



✔ **우체국쇼핑 온라인 전통시장 • 지역 상권엔 온기를, 장바구니엔 알뜰함을**

우체국쇼핑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 전통시장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할인 혜택을 받아 충전한 뒤 사용하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품을 알뜰하게 만날 수 있다.

풍성한 혜택으로 가득한 우체국쇼핑의 연말

연말 장보기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면 11월과 12월의 행사도 눈여겨볼 만하다. 11월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국가대표 할인축제 '우체국쇼핑 팔도마켓(10.29.~11.15.)'을 운영한다. 행사 기간에는 라이브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와 초특가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12월 15일은 우체국쇼핑 출범 40주년이다. 이를 기념해 12월에는 '연말 감사 대축제'를 열고 40년간 함께해 온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연말 선물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상품과 할인 혜택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11월
국가대표 할인축제
우체국쇼핑 팔도마켓

다양한 지역 우수상품과
풍성한 쇼핑 혜택을
마련한 행사

12월
우체국쇼핑 40주년 기념
연말 감사 대축제

40년 동안 함께해 온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행사

**지금,
우체국쇼핑에서
만나보세요!**

우체국 핫클립

우체국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더 많은 영상이 보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우체국'을 검색하세요!
출퇴근길처럼 무료하게 느껴지는 잠깐의 시간에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어줄 테니까요.

정리. 편집실



영상 바로가기

이스포츠의 전설, 페이커가 우표로 탄생하다!

세계적인 이스포츠 스타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우표에 담겼습니다! 10월 23일 발행된 기념우표부터 특별한 소장품과 게임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획전시까지! 우표로 만나는 이스포츠의 전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2



우체국=택배? 미미미누가 물어봤습니다!

사회초년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베이스캠프,
우체국에 미미미누가 떴습니다! 2030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체국의 이미지부터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우체국예금의
혜택까지! 미미미누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영상 바로가기

3



우체국 문 닫았다고요? 이제 편의점에서 소포 보내세요!

우체국 운영시간을 놓쳐도 걱정 마세요!
가까운 CU 편의점에서 소포를 접수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수거해 안전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우식이가 알려주는
간편한 소포 접수 방법,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영상 바로가기

4



우체국의 특별한 소식, 우디가 전해드립니다!

우체국이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28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로 이뤄낸 뜻깊은
성과부터 우체국 금융만의 5대 강점까지! 우체국 디지털홍보
파트너 '우디'가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릴스로 만나보세요!

영상 바로가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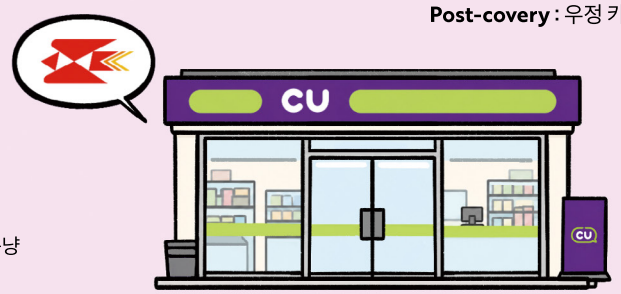
월급은 스쳐 갈 뿐? 달달한 적금으로 저축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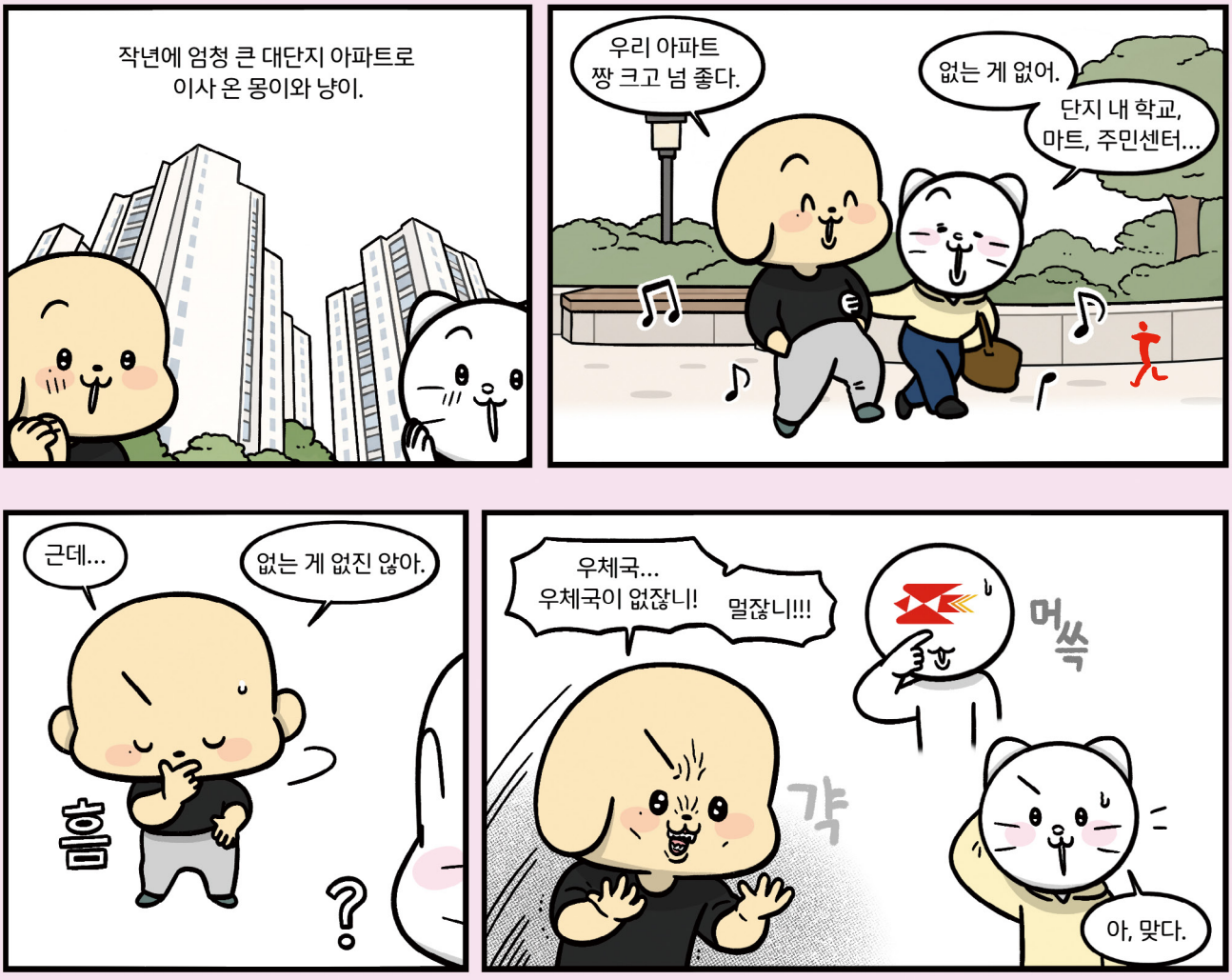
매달 월급은 들어오지만 돈 모으기는 쉽지 않은 직장인들!
청년 고객 우대금리부터 저축 목표 설정, 꾸준한 저축에 따른 추가
혜택까지! 우체국예금 서포터즈 '무한달달'이 소개하는 달달하이
적금의 다양한 혜택과 똑똑한 저축 방법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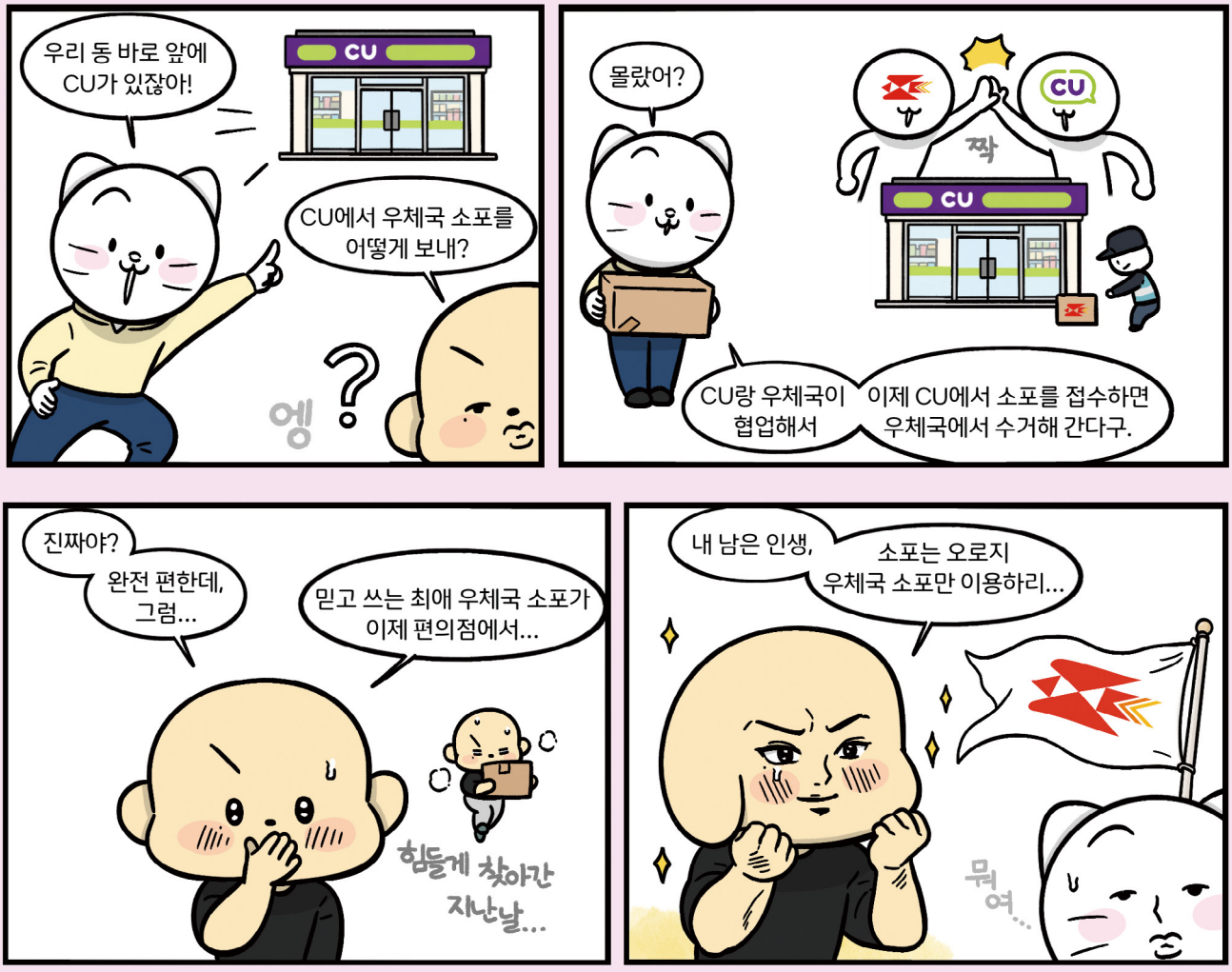
영상 바로가기

우체국이 편의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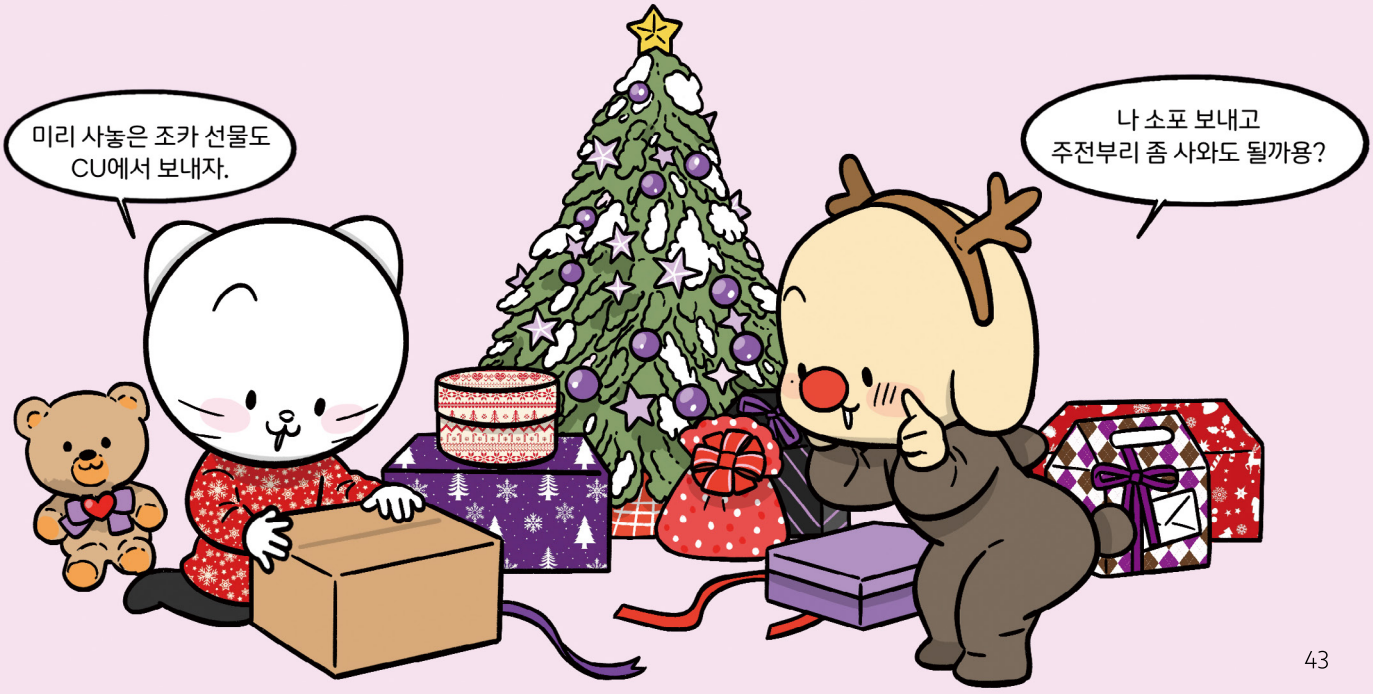
그림. 몽냥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연말연시,
우체국 소포는 가까운 CU 편의점에서!



독자 여러분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글을 선정해 '우체통 앞에서'에 소개합니다.
《우체국과 사람들》 담당자 E-MAIL : sr2305@posa.or.kr

First Story

편지가 준 선물



from. 박미정(대구광역시 북구)

하늘이 높아지고, 더위가 살짝 물러날 무렵인 작년 9월에 아들이 해군에 입대했다.
훈련소에서 큰절을 하며 뒤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기둥 뒤에 숨어서 눈물을 훔쳤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눈물이 통곡이 될까 봐, 행여나 이 모습에 아들이 더 힘들까 봐
조개처럼 입을 꽉 깨물었다. 난자리가 이렇게 클 줄이야. 아들 방의 온기와 체취가 느껴져서
눈물만 주르르 흐르고 못해 준 것만 떠올라 미안한 마음이 바람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길을 걷다 풀 한 포기만 봐도 눈물이 흐르니 온통 눈물의 핑계가 되어 주었다.
입대 후 일주일이 되던 날, 커다란 장병 박스가 도착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달랜 마음이 다시 도루묵이 된 듯 또 눈물이 한 바가지다.
아들의 옷 속에 꼬깃꼬깃 날려 쓴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사랑합니다." 아들에게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들어본 말이라 그 어떤 말보다 고맙고 또 고마웠다.
얼른 편지지와 펜을 잡아드는 순간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왜 그리 많은지 써도 써도 끝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향기도 차고 넘치도록 담았다. 남편은 내 성화에 못 이겨 겨우 종이 반 장을 채워
쭈뼛쭈뼛 내밀었다. 매일 아침 우체국 앞으로 달려가서 빠른 등기로 위문편지를 보내는 것이
근래에 없었던 즐거움이자 낙이었다. 주말에 아들과 전화 통화가 되는 날에는 재잘재잘 일과 보고하듯이
떠들어 주는 아들이 신통방통했다. 원래 무뚝뚝한 아이인데 이렇게 곰살맞고 다정하게 얘기한다는 건
엄마가 이제는 안심하고 마음을 내려놓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훈련소에 있는 동안 매일 쓴 편지는 나와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편지를 쓰면서 전화 통화보다 더 애틋한 마음이 반짝반짝 빛났고, 덕분에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제대하는 그날, 더 단단해진 아들이 멋지게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오르길 바라본다.

Second Story

우체국의 도장을 따라 여행을 간다는 것



from. 서은경(울산광역시 북구)

10여 년 동안 우표를 모으고 나니까 우표와 관련된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중 나에게 크게 다가온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관광우편날짜도장(이하 관광인)이다.
특정 우체국에서는 그 지역과 관련된 우편도장을 찍을 수 있다고? 전국에서 그 우체국에 가야만
찍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정판'에 목을 매는 MZ들을 뭐라 할 이유가 없다. 이미 1954년부터
우체국에는 한정판이 있었다. 그렇게 나의 관광인 수집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나도 다른 수집인처럼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관제엽서에 도장을 찍으며 모았다.
그런데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취미라 그런지 이 우표와 관련된 취미에는 곁가지가 참 많다.
그중 나를 가장 매혹시킨 건 바로 맥시(Maximum Card의 줄임말), 도장, 엽서와 우표까지 3종을 세트로
맞춰서 모으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나비 엽서가 없어서 박물관의 나비가 들어간 민화 엽서를 샀다.
괜찮은 등대 엽서가 없어서 등대를 직접 찾아가 사진 수백 장을 찍어서 엽서를 제작했다.
그렇게 나는 10년 넘게 맥시를 하나씩 모아 오고 있다. 9월 17일에는 전국에서 관광인이 4개나
새로 나왔다.(통영 한산도 이충무공유적,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김해 대성동 고분군, 창원 국가산업단지).
정확히는 이 4개 지역에는 이미 관광인이 있는데, 그 소재가 변경되어 이전에 사용하던 관광인이 폐지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뀐다. 마침 내가 사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학창 시절을 지낸 도시의 관광인 또한
바뀌어서 그날 하루 휴가를 냈다. 두 군데를 직접 가는 것이 조금 과할까 싶었는데,
네 군데 모두 간다는 분들이 꽤 있길래 "역시 나는 초보야!"라고 생각하고 있다.
도장을 찍으러 여행을 다닐수록 이것저것 장비가 늘어난다. 잉크는 당연하고, 딱딱한 곳에서 찍으면
소인이 고르게 나오지 않아서 살짝 폭신한 것도 필요하다. 잉크, 엽서, 그리고 엽서와 짝꿍인
우표까지 챙기면서 우체국 도장을 따라 떠나는 나의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Post New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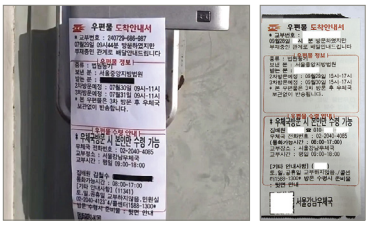
우체국, 자사몰 운영 소상공인에 물류비·금융 혜택 지원



전국 자사몰(D2C) 운영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비 감액과 금융 지원책이 10월 1일 발표됐다. 우정사업본부와 카페24의 업무협약으로 계약소포 요금을 감액하고, EMS(2%)와 k패킷(1%) 등 국제우편 할인을 적용한다. 아울러 우체국예금 거래 수수료 면제와 최고 연 0.15%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혜택은 사전에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우체국 서비스를 관심등록한 고객이 실제 우체국과 계약(우편 또는 금융상품)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2

우체국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 주의 당부



최근 우체국 명의의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장한 레터피싱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는 안내서는 특수 감열지로 제작되어 쉽게 떼어지지만, 일반 종이에 투명테이프로 부착되었거나 스티커 잔여물이 남는 경우 위·변조를 의심해야 한다. 위조가 의심될 경우 우편고객센터(1588-1300)나 가까운 우체국에 연락해 실제 우편물이 배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우체국은 인터넷·전화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

3

궁궐 단청의 아름다움, '한국의 단청' 기념우표 발행



전통 단청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한국의 단청' 기념우표 54만 장이 10월 1일 발행됐다. 이번 우표에는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표현한 궁궐 단청의 다양한 '머리초' 문양이 담겨 전통 조형미와 색채미를 선사한다. 오방색을 바탕으로 한 단청의 예술성과 액운을 막고 복을 기원했던 선조들의 미의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우표는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서 구매 가능하다.

4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도서문화상품권' 판매



국민의 상품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9월 2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도서문화상품권' 판매가 시작됐다. 판매하는 도서문화상품권은 5,000원·1만 원·5만 원권 등 총 3종으로, 현금 및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도서, 영화, 쇼핑 등 전국 2만여 오프라인 가맹점과 600여 온라인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하며 네이버페이, OK캐시백 등 제휴 포인트 전환도 지원한다. 신용카드 구매 시 본인 명의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5

KCSI
28년 연속 1위 달성…
특별소통 성공적 완료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공공서비스 부문 28년 연속 1위, 택배·소포 부문 15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서비스 이용 고객의 평가와 철도·도로·전력·치안 등 9개 공공서비스 중 최고 신뢰를 얻은 결과다. 아울러 16일간 진행된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도 전 직원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6

집배 현장 맞춤형
전기우편 차량 도입

집배 업무에 최적화된 전기 우편 차량 '기아 PV5 카고' 200대가 9월부터 전국 우체국에 순차 배치됐다. 반복적인 승하차 부담을 줄이도록 차체 바닥을 낮추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어 파손 방지 장치와 평탄한 알루미늄 적재함 바닥을 적용하는 등 작업 편의성을 높였다.



7

보장 넓히고 가입 문턱 낮춘 우체국보험
대표상품 2종 출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우체국보험 대표상품 2종이 고객 요구를 반영해 새롭게 출시됐다. 올인원 상품인 '무배당우체국하나로OK보험'은 간편가입형과 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을 신설해 가입 문턱과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어린이보험인 '무배당우체국New든든한자녀지킴이보험'은 ADHD, 성조숙증 등 특약을 신설해 보장을 강화했다.



8

광주·부산은행 창구망
개방 업무협약 개체

전국 우체국에서 시중·지방은행 업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 금융창구망 공동이용 업무 제휴' 협약이 8월 28일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부산은행 창구망이 추가 개방되면서 전국 2,400여 개 우체국에서 14개 모든 시중·지방은행의 금융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9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지원…
'우체국FC' 취업 연계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지난 10월 8일, 우정사업본부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의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우체국FC 직업 체험과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우체국쇼핑 입점 관련 전자상거래 컨설팅으로 여성 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속·산하기관 소식

❶

충청지방우정청
지역 아동을 위한 사랑나눔 식사 및 밑반찬 전달



충청지방우정청이 결식 우려 아동과 가정에 따뜻한 식사를 전하며 지역사회 돌봄의 가치를 실천했다. 9월 30일 대전 대덕구 초록우산 대전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어린이 식당에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저소득·다자녀 등 결식 우려 가정 70여 가구에게 균형 잡힌 밑반찬을 전달했다.

❷

전북지방우정청
전북교육청과 '독서 300 프로젝트' 실현 업무협약 체결



전북지방우정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9월 9일 '독서 300 프로젝트' 및 책 읽는 전북교육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온책읽기 학교대출 서비스 활성화와 독서·편지를 연계한 '온책이음 마음 우편' 등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우체국의 우편·물류 인프라를 통해 도내 10개교 학생 5,230여 명의 독후 엽서 수거와 배송을 지원한다.

❸

우체국물류지원단
국제화물 서비스 '포스트픽(PostPick)' 서비스 개시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중소 수출기업의 국제화물 운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인 '포스트픽'을 선보였다. 포스트픽은 화물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송조건과 견적을 제공하고, 접수부터 통관·국제운송·현지배송까지 연계하는 서비스다. 9월 14일부터 미국·베트남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향후 통합 물류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❹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편고객센터, 4년 연속 전화상담 품질지수 우수기업 선정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편고객센터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전화상담 품질지수 조사(KS-CQI)'에서 기타 공공기관 부문 우수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365일 24시간 AI 대화로봇 '행복이' 운영과 대용량 데이터 기반의 인입량 예측 방식을 도입해 상담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금융·산업계와의 협력 강조

「물리적 인공지능 지역거점 발전 포럼」 참석 및 기술 시연 참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부총리)이 9월 22일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지역거점 발전 포럼'에 참석해 국내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금융계·산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피지컬 AI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과 지역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위원장 및 주요 지자체장, 정책금융기관장,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행사 전 시연장을 찾아 4족 보행 로봇, 자율비행 무인기(드론), 달 표면 탐사 로봇 등 국내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축사를 통해 AI가 현실 세계를 직접 인식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음을 짚으며, 정부 차원에서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1조 4,000억 원 규모의 국가 R&D 사업을 통해 전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축적한 기술과 실증 성과가 전국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피지컬 AI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의 검증과 금융 지원, 기업의 투자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적임을 피력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메가프로젝트 피지컬 AI 분야 선도 원천기술 개발부터 현장 실증, 생태계 확산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의 강점과 연계해 성과가 전국으로 파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독자 참여

2026 11+12 vol.773

EVENT. 1

알쏭달쏭 퀴즈

이번 호를 읽고 세 가지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총 15명을 추첨하여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❶ 우정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교육기관은 어디일까요?

1. 우체국공익재단 2. 우정인재개발원 3. 우체국물류지원단

❷ 40주년을 맞은 우체국쇼핑에서 선보이는 서비스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특산물 브랜드 2. 맛보기&써보기 3. 백화점상품권

❸ 우체국예금의 신규 홍보대사가 된 아이돌은 누구일까요?

1. 라잇썸 2. BTS 3. 블랙핑크

EVENT. 2

체국이를 찾아라!

책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곳에 숨겨진 2명의 체국이를 찾아보세요. 체국이를 발견한 페이지 번호를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EVENT. 3

할 말 있어요

《우체국과 사람들》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혹은 취재 요청이 있다면 《우체국과 사람들》 웹진(postnews.kr) 이벤트 참여하기 배너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세요. 의견 채택 시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2026년 9+10월호 정답

❶ 우정정보관리원
❷ 핵심SP
❸ 태권브이

이벤트 모바일 참여 방법



QR 코드를 스캔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PC 참여 방법

《우체국과 사람들》 (www.postnews.kr) 사이트에 접속해 오른쪽 《우체국과 사람들》 이벤트 참여하기 배너를 클릭해 참여해주세요. 세 가지 이벤트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참여 기한 2026년 12월 31일(목)

* 이벤트는 웹진에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체국과 사람들》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체통 앞에서'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글을 선정하여 《우체국과 사람들》에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원고 보낼 곳 《우체국과 사람들》 담당자

메일 sr2305@posa.or.kr 주소 (07245)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83, 5층

※ 원고는 가급적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내게 화답하는 보험
우체국보험

복잡하게 찾아 헤매지 마세요

보험은 하나로



진단·입원·수술·치료부터
일상 생활 보장까지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선택!

필요한 당신에게
든든한 화답으로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2609

상품안내 QR코드

가입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등) 및 보장개시일 및 지급 한도, 면책·감액 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중요내용 설명 미이행, 자필서명 누락 등의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이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 •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의 증가, 적용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으며, 최대 갱신 나이, 주기 등은 약관 및 기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간편고지 상품은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가 대상이므로, 일반심사 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32조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보험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지급이 보장됩니다. •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www.epostlife.go.kr, 모바일앱 m.epostlife.go.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우체국F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번호: 00-260826-1038-P400084(2026.08.26.~2027.08.25.)

MIX
Paper | Supporting responsible forestry
FSC® C159581

《우체국과 사람들》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한 인쇄 파트너사에서 FSC® 인증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우체국과 사람들

KOREA POST MAGAZINE SINCE 1946



COVER STORY

1946년 10월 창간, 올해 80주년을 맞은
《우체국과 사람들》의 표지는
그동안 이어져 온 사보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려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다섯 번째 제호 《우체국과 사람들》의
2023년 11+12월호(vol. 755) 표지를 재해석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